

Artist's Statement

이경훈

보이지 않는 공간을 걷는 시간

식물이 자라는 걸 가만히 지켜보면
언제부터인가 그 주변의 공기, 빛, 여백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된다.
무언가가 자라난다는 건 결국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뜻이다.
이번 작업도 그런 감각에서 시작되었다.
나는 늘 '비워진 공간'이 마음에 남는다.
그건 단순히 텅 빈 자리가 아니라,
어떤 가능성과 감각들이 조용히 스며들고 자라나는 틈이다.
가만히 들여다보면, 그 안엔 보이지 않는 생명과 리듬이 있다.
그 리듬은 공기처럼, 물처럼 흐르고
때론 숨기처럼 피부에 닿듯 내 감정에 닿는다.
작품 속 캐릭터 '현'은 이 공간을 유영하는 존재다.
말없이 걷고, 누워 있고, 무언가를 기다리거나 반응하는 그 모습은
어쩌면 나 자신이기도 하고, 관람자이기도 하다.
'현'은 공간 속의 리듬에 따라 움직이고,
그 자체로 하나의 악기가 되어 주변을 흔든다.
누군가는 그것을 공상이라 할 수도 있고,
누군가는 명상이라 할 수도 있다.
이 여정은 니체가 말한 '초인'의 세계와 닿아 있다.
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가는 과정,
그 안에서 자기만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일.
또한 장자의 '무위'처럼, 억지로 뭔가를 만들지 않고
자연스럽게 떠오르고 흐르는 것을 받아들이며 만든 작업이기도 하다.
색과 선, 점과 결 사이에 숨은 긴장과 평온,
그 경계에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고, 그림이 태어났다.
이 작업은 결국 '공간을 만든다'기보다,
이미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공간을 '깨우는' 일에 가깝다.
보여지는 세계에 갇힌 마음이라면,
이제는 조용히, 내 곁에 머문 공간을
새로운 감각으로 깨워볼 차례인지도 모른다.